

가을 대중음악축제 기지개 커나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2021 포스터.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예기치 못하게 지난해 '안식년'을 보냈던 가을 대중음악 축제들이 잇따라 개최 소식을 알리고 있다. 12일 공연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을 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GMF) 2021'은 다음 달 16~17일과 같은 달 23~24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넬, 십센치, 데이브레이크, 아반자

카파, 정승환, 정준일, 페퍼톤스, 선우정아, 박혜원, 이승운, 이무진 등 총 32팀이 무대에 선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은 증명서를 보여준 뒤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다.

1차 라인업에는 고상지, 루시드폴, 마더비브, 데이먼 브라운, 이선지, 광진언, 다린, 송영주 콰르텟, 대니얼 린데만 옥텟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축제는 지정좌석제와 거리두기 좌석제로 운영된다. 스테이지는 1개만 마련해 관객 동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서울숲' 등 내달 개최 일부 축제, 접종 완료·PCR 음성 확인자만 입장

이에 해당하지 않는 관객은 현장에서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활용해 검사를 받은 뒤 음성으로 확인돼야 공연장 입장이 가능하다. 주최사 민트페이퍼는 앞서 6월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에서도 관객 4,000명을 비롯해 직원, 아티스트 등의 자가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도심 속 자연에서의 재즈 축제를 표방한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2021'은 다음 달 16~17일 성동구 서울숲에서 펼쳐진다.

선을 최소화했다. 다음 달 9~11일 경기 가평군 자라섬과 음악역 1939에서 열리는 또 다른 재즈 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역시 지정좌석제를 적용한다. 무대도 '재즈 아일랜드' 하나만 사용한다. 선우정아, 정원영밴드, 김현철, 조응민&바다, 하드피아노 등이 출연을 확정했으며 향후 2차 라인업도 공개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 EDM(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축제인 '월드디제이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1 포스터.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제공

은 2007년 개최 이래 처음으로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열린다. 다음 달 9~11일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총 44명의 DJ가 관객을 맞는다. 공연 당일까지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 혹은 백신 1차 접종 완료 후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리사, 솔로 데뷔 싱글 발표

"저의 가장 멋진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저 '리사' 자체를 보여드리고 싶었죠." 세계적 걸그룹 블랙핑크의 메인댄서라사가 첫 솔로곡에 내건 이름은 명쾌하다. 그의 본명 '라리사 마노반'의 라리사(LALISA). 지난 10일 첫 솔로 싱글 '리사'와 동명의 타이틀곡을 발표한 리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제 이름이 가진 힘과 자신감 있는 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라리사'는 리사가 데뷔 5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솔로 타이틀곡이다. 강렬한 힙합 장르의 곡으로 사이렌을 연상시키는 관악기 요소와 역동적 리듬이 도발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리사의 파워풀한 랩이 어우러진다. 태국에서 꿈을 품고 한국으로 날아와

이제는 K팝을 대표하는 세계적 걸그룹의 멤버가 된 리사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오롯이 담았다. 뮤직비디오 안무와 스타일링, 앨범 커버 디자인 등 많은 부분에 그가 직접 참여했다. 리사는 곡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첫 시작부터 '내 뒷 모습만 봐도 알잖아'라는 가사가 나오는 데 안무와 너무 잘 어울린다. 시작부터 자신감이 '뻑' 올라온다"고 답했다. 수록곡 '머니'(MONEY)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중독성 강한 힙합곡"이다. 리사는 "머니"를 처음 듣자마자 테디오빠에게 "오 마이 갓, 이게 꼭 하면 좋겠어"라고 말했다"며 "타이트한 랩이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리사는 제니, 로제에 이어 블랙핑크의 세 번째 솔로 주자다. 블랙핑크는 멤버 개인이 셀러브리티로서 강력한 아우라를 지녀 세계적 관심을 받아 왔다. /연합뉴스



'펜트하우스3'. /SBS 제공

폭주기관차의 끝은 '악의 파멸'

'펜트하우스3' 19.1%로 종영

2년여간 달려온 '김소연 표 폭주 기관차'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0일 밤 10시 5분 방송된 SBS TV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 마지막 회 시청률은 19.1%로 집계됐다. 이날 방송된 모든 채널의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이지만, 시즌 1 마지막 회(23.6%~28.8%)와 시즌 2 마지막 회(21.5%~25.8%)에 비하면 20%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저조한 성적이기도 하다. 최종회에서는 딸 하은별(최예빈 분)의 증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천서진(김소연)이 후두암을 앓게 되고, 몰래 딸을 지켜보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심수련(이지아)은 약을 처방하기 위해 자신이 해왔던 선택을 후회하며 스스로

절벽에서 떨어진 뒤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몇 년 후 골수암이 재발한 로진 리(박은석)도 결국 사망했다. '펜트하우스'의 세 번째 시즌은 악행을 저질렀던 이들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죄값을 받게 되는 '악의 파멸'을 그려내며 '권선징악'이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선한 편에 서 있던 심수련과 로진 리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반전을 위한 반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부동산과 임시 경쟁을 소재로 인물들의 일그러진 욕망을 그려내겠다며 출발한 '펜트하우스' 시즌 1은 첫 회 9.1%에서 최종회 28.8%까지 급격한 시청률 상승세를 그리며 화제를 모았다. 높은 인기로 힘입어 제작된 시즌 2에서는

최고 29.2%의 시청률을 보이며 저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시즌 3은 빠른 전개와 부족한 개연성에 피로감이 누적된 시청자층이 떠나면서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모두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법과 제도, 심지어는 상식까지 뒤어넘는 인물들의 행보는 좀처럼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으며, 특정 인종을 희화했다는 논란부터 광주 철거민 불복 참가 및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의 모습을 사용하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연출에서의 아쉬움도 남았다. 욕망 넘치는 상류사회를 그려낸 만큼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화려한 소품과 의상은 시즌이 지속될수록 빛이 바랬다. 또 정극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코믹한 연출들이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했고, 사람의 혈관에 주사로 칩을 심는 등의 무리한 설정도 작품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연합뉴스

디즈니, 모든 영화 극장 개봉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올해 출시 예정작을 모두 상영관에서 단독 개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디즈니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배급 부문 대표 카림 대니얼은 "극장 관람에 대해 확신이 생기면서 앞으로 극장에서 관객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모든 디즈니 영화는 극장에서 최소 45일간 단독 상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봉을 앞둔 영화는 애니메이션 '룬스곤 룬'(10월), 14세기 프랑스 역사 실화를 다룬 '라스트 듀얼'(10월), 마블 '이터널스'(11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리메이크 작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12월)와 '킹스맨'(12월) 등이 있다. 극장 관계자들은 박스오피스를 장악해온 디즈니가 팬데믹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두고 영화가 갖는 문화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하며 우려해왔다. 그러나 최근 마블의 첫 아시아 히어로 영화 '상지와 텐 링즈의 전설'이 극장 단독 상영을 통해 역대 흥행 기록을 깨면서 업계는 다시 긍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지우, '소름'으로 4년 만에 복귀

배우 최지우가 4년여의 공백을 깨고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소름'으로 돌아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2일 "카카오TV 오리지널 '소름'에 배우 최지우가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름'은 영화 '기담'·'공저방'의 정범식 감독 연출으로, 평온한 일상도 공포

가 될 수 있다는 주제를 담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만의 서스펜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지우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 현장을 연출한다. /연합뉴스



48년생 조였던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 60년생 이미 확정된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라. 72년생 곧 대업을 이룰 것이다. 84년생 천하에 이름을 크게 떨친다.	49년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 61년생 비상사태를 대비하라. 73년생 겸손한 사람은 재앙도 두렵지 않다. 85년생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50년생 서운해도 참고 아량을 보여 주라. 62년생 정당한 내 몫을 찾는 날이다. 74년생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86년생 후회할 일은 시작도 하지 말라.	51년생 모든 것을 용서하라. 63년생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75년생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87년생 최선을 다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52년생 근심거리가 조용히 해결된다. 64년생 자신의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76년생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88년생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라.	41년생 사소한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53년생 안전제일이다. 65년생 성급한 투자는 삼가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 77년생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라.	42년생 춤추고 노래할 좋은 운세이다. 54년생 뭉치면 실패하고 흩어지면 죽는다. 66년생 운 세상에 명예를 떨친다. 78생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43년생 첫인상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55년생 부부간에도 적절한 예의의 필요하다. 67년생 현실을 망각한 꿈은 허구일 뿐이다. 79년생 일찍 귀가하라.
44년생 뜻밖의 소득이 있겠다. 56년생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라. 68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80년생 처음은 힘들겠지만 차츰 적응할 것이다.	45년생 운세 좋은 날이다. 57년생 다급해도 절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69년생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다. 81년생 중요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46년생 화가 나도 한 번만 더 참자. 58년생 가뭄에 단 비가 내린다. 70년생 이상 동료와의 갈등은 파국의 씨앗이 된다. 82년생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겠다.	47년생 동분서주하는 바쁜 날이다. 59년생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 71년생 가능하면 오늘은 유희에 가지 말라. 83년생 행복은 만족 속에 있다.